

# 재일코리안 한국계 민족학교의 학교문화 특성에 관한 연구\*

임 영 언\*\* · 허 성 태\*\*\*

(e-mail: yimye@hanmail.net · moscow@chosun.ac.kr)

---

## 目 次

---

- I. 연구 목적
  - II.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IV. 한국계 민족학교의 제도적 특성과 학교문화 형성
  - V. 결론 및 시사점
- 

## I. 연구 목적

전 세계적으로 한일간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서 일본에 존재하는 재일코리안만큼이나 모국이 아닌 이국 현지에서 민족학교를 많이 세운 사례는 드물 것이다. 일본에 존재하는 민족학교는 크게 민단체 한국학교, 총련계 조선학교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민족학교는 다시 제도적인 측면에서 각종학교와 일조교로 구분된다. 이 연구에서는 민족학교가 일본학교교육법상 각종학교와 일조교로 분리되어 발전되어 왔다는 점에 착안하여 현재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어떤 민족학교 형태로 바뀌게 되었는지 역사적 배경과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413-2013S1A5B8A01055017).

\*\*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 연구교수(제1저자).

\*\*\* 조선대학교 러시아어학과 조교수(교신저자).

1945년 일본의 패전과 더불어 일본에서 우후죽순 식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민족학교 수는 1946년 일본 전국에 대략 525개교에 달했으며 전체 학생수 약 4만 4,000명을 초과하였다. 그러나 1948년 4월 24일 발생한 ‘한신교육투쟁’은 일본정부와 GHQ(미점령군)에 의해 본격적으로 민단체 한국학교와 총련계 조선학교로 갈리는 분기점이 되었다. 그리고 점차 총련계 조선학교는 1966년에는 142개교, 약 3만 4,000명으로 감소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는 일본 국내에서 북한-일본관계의 여론악화와 일본인 납치사건에 따른 재정적 차별 강화 등 다양한 이유로 2012년에는 102개교 약 8,500명 정도로 감소하여 폐교되는 학교들이 속출하는 등 학교유지와 발전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실정이지만 특별한 해결책이 모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sup>1)</sup>

이와는 달리 민단체 한국학교는 1948년 당시 전체 4개 학교에서 두 개 학교가 일본정부에 의한 일조교의 인가를 받았으며 나중에 한 개교가 일조교로 추가되어 현재 각종학교로는 도쿄한국학교가 유일한 상황이다. 이들 두 개 형태의 민족학교의 특징을 살펴보면 총련계 조선학교는 해방이후 일본정부의 제도적 시스템으로부터 분리되어 각종학교를 일본전국에 확대 전개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민단체 한국학교는 당시나 지금이나 4개 학교가 존재하여 수적으로 큰 변화는 없지만 일찍이 일본정부의 제도적 시스템을 받아들인 일조교는 학교의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각종학교인 동경한국학교는 성공적인 운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일본에 존재하는 민족학교의 특징은 몇 개의 일본정부의 지원을 받는 일조교를 제외하고는 독자적으로 운영해온 각종학교가 대부분이다. 현재 총련은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100여개가 넘는 조선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단 역시 도쿄를 중심으로 4개의 한국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 운영 면에서 최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1945년 해방 이후 거의 69년 동안 고도의 운영방법이나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민족학교를 독자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 운영해왔다는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 존재하는 민족학교는 거의 대부분이 학생수의 감소와 적자운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민족학교의 위기의 발단에 대하여 각종학교와 일조교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제도적 측면에서 민족학교의 학교문화의 형성 배경과 원인을 규명하여 대안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1) 中島智子(1993) 「日本の多民族教育と在日韓国・朝鮮人教育」 『異文化間教育7』 アカデミア出版、pp.75-76.

## II.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 1. 학교문화의 제도적 차이 형성 배경

먼저 학교문화는 제도적·정책적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학교문화를 제도적 측면(각종학교와 일조교)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박수정의(2013)의 연구에 의하면 학교문화는 학교의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학교 변화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2)</sup>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학교문화를 “학교구성원, 즉 민족학교 학생들이 인식하는 문화적 특성”으로 정의하여 제도적 측면(각종학교와 일조교)에서 학생들이 민족학교의 실태 및 전망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일본에 있는 민족학교는 제도적 측면에서 각종학교와 일조교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제일코리안 학교문화 형성 배경의 제도적 측면에서 고찰해보면, 일본의 학교교육법 제1조에는 “학교는 초·중·고등학교, 중·고 일관제 교육, 대학교, 고등전문학교, 맹학교, 농학교, 간호학교 및 유치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통 일본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보통학교들은 대부분 ‘일조교’에 속해 있으며 민족학교만이 예외로 각종학교로 정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민족학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일본 학교교육법 제83조에서 “제1조에 열거한 이외의 학교로 학교교육에 해당되는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각종학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총련계 조선학교와 같은 민족학교는 법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각종학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sup>3)</sup>

다음 <표 1>은 제도적 측면에서 각종학교와 일조교의 차이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차이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교원채용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일조교는 원칙적으로 교원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교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각종학교에서는 교원면허가 없어도 된다. 둘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채택에 관한 사항으로 일조교는 일본 문부성의 검정을 마친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지만 각종학교는 의무규정 외에도 자유롭게 교과서를 선택하여 커리큘럼에 적용할 수 있다. 셋째, 학령기에 해당되는 학생 모집방법에 대한 것으로 각종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취학통지’

2) 박수정·이준우(2013) 「학교문화가 학교구성원의 학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3 No.7, p.453.

3) 仲尾宏(2003) 『在日韓国・朝鮮人問題の基礎知識』 明石書店, pp.77-78.

와 같은 수단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방법으로 학령기 대상의 학생들을 발굴하거나 모집해야 한다.

〈표 1〉 민족학교의 제도적 차이<sup>4)</sup>

구분	일조교	각종학교
• 교원채용	• 원칙적으로 교육직원면허를 소유하고 있어야 교원으로 채용 가능	• 자유롭게 교원 채용(교육직원 면허를 소유하지 않아도 채용 가능)
• 교과서 채택	• 일본 문부성의 검정을 마친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	• 교과서나 커리큘럼의 자유로운 선택(문부성 검정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가능)
• 학생모집	•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령기 대상 학생들 모집에 어려움이 없음	•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학령기 학생들을 독자적으로 모집해야 함
• 교육재정	• 일본 정부와 문부성의 적극적인 교육보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없음	• 일조교와 교육보조금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수업료와 기부금에 의존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장단점	• 일본문부성의 학교운영과 커리큘럼 편성에 통제를 받음	• 자유로운 학교운영과 독자적인 커리큘럼 편성

종합적으로 이들 학교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각종학교는 일조교에 비해 자유로운 학교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민족교육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각종학교와 일조교는 상당히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자신의 자녀들을 민족학교에서 교육시키는 가정도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임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판단으로 보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본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모두 합쳐도 일본 사립학교 지원규모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민족학교 중 각종학교는 학교재정의 대부분을 수업료와 기부금으로 충당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또한 일조

4) 金賢(2006) 『在日コリアン』 株式会社九天社, pp.157-158. 내용의 골자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교로 전환하면 교원이나 교과서 내용도 일본정부가 규정하는 일조교의 규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독자적인 교육운영이 어렵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민단계 민족학교가 일조교로 전환하는 경우는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민단계 민족학교가 일조교로 전환한 것은 단 한 건으로 1985년 금강학원이 유일하다.

〈표 2〉 민족학교의 제도적 차이에 따른 구분

일본학교 교육법상의 자격	주요 민족학교
일조교(3개교)	오사카 백두학원, 오사카 금강학원, 민단계 교토국제학원(KIS)
각종학교(99개교)	현존하는 총련계 조선학교 98개 도쿄한국학교 1개교

현재 일본에 존재하는 민단계 한국학교와 총련계 조선학교의 민족학교를 제도적 측면에서 일본학교교육법상의 자격별로 각종학교와 일조교의 구분하면 위의 〈표 2〉과 같다. 일조교는 교토국제학원, 오사카 백두학원, 오사카 금강학원 등 민단계 한국학교들이 해당된다. 그리고 각종학교는 현존하는 총련계 98개교와 도쿄한국학교 등 총 99개교이다.

## 2. 선행연구 및 이론적 토대

해방이후부터 최근까지 총련계 조선학교와 민단계 한국학교는 시설이나 규모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그 갈림길에는 일조교와 각종학교라는 제도적 선택에서 기인한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학교는 도쿄한국학원을 제외하고 1948년 한신교육투쟁을 계기로 일조교로 전환하여 일찍이 안정적인 학교 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조선학교는 북한의 재외공민<sup>5)</sup>으로서 재일조선인들의 사상교육을 우선시하였기 때문에 각종학교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고 이에 따라 총련을 중심으로 민족학교를 일본 전국으로 확대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sup>6)</sup>

지금까지 민족학교에 대한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오자와(小澤有作, 1973)와

5) 진희관(2011) 「북한의 재외동포정책 연구: 재중총련, 재CIS동포, 재일총련 그리고 재미동포정책 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23(1), pp.361-396.

6) 이현홍(2009) 「재일한인 생활사소설 연구: 교육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35, pp.153-197.

김덕룡(金德龍, 2004), 그리고 김인덕(2008, 2012)에 의한 민족학교의 역사적인 형성과 발전과정 연구, 박삼석(朴三石, 1980, 1997, 2012)의 민족학교 교과과정과 조선학교의 학교생활에 관한 연구, 소냐 량(ソニアリャン, 2005)과 한동현(韓東賢, 2006)의 조선학교 언어교육을 통한 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조해성(2012)의 연구는 조선학교가 재일코리아 커뮤니티에 미친 영향과 역할을 분석한 것으로 매우 흥미로운 논문이다. 그러나 본 논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연구로는 박상득(1980), 민족교육연구회편(1991), 재일본조선인교육회편(1996) 등으로 민족학교가 각종학교로서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민족적 성과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민단계 한국학교에 대하여 일조교와 각종학교의 차이를 다룬 카지 이타루(鍛治致, 2013: 157)의 연구는 이들 학교의 제도적 비교를 통해 차이점을 도출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이 연구가 일본에 존재하는 민족학교 중 일조교의 쇠퇴에 대하여 저출산고령화와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학생수가 격감하게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는 비슷한 관점에서 송기찬(宋基燦, 2012: 81)의 연구는 조선학교의 경우 글로벌시대 제도적인 관점에서 일본정부로부터 분리주의를 선택해왔다는 점을 성공과 쇠퇴의 이유로 지적하였다. 즉 총련계 조선학교가 제도적 분리와 학교 내의 집단주의를 생존전략으로 내세워 어느 측면에서 성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민단계 한국학교의 일조교(오사카 중심 3개교)는 원래 올드커머 자녀들을 위해 설립된 학교였다. 그러나 민단계 일조교는 글로벌화에 순응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학생자 층을 개척한 결과 재학생의 민족구성은 어느 정도 다양성을 이루었지만 학교자체의 활성화까지는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카지 이타루(鍛治致, 2009)의 연구에 의하면 1960년대까지만 해도 오사카지역 최대 한국학교의 하나였던 백두학원과 금강학원은 도쿄한국학교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의 졸업자를 배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학생수가 감소하여 1980년대 약간 회복세를 보였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뉴커머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전반에는 도쿄한국학원이 대규모의 유일한 한국학교로 부상하였다. 과거 1980년대 이전만 해도 올드커머가 많았던 오사카지역의 학생수가 도쿄를 압도하였지만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학생수가 증가하기 시작한 뉴커머가 오사카와 도쿄의 지위를 역전시켜 1997년 IMF통화위기 이후에는 도쿄의 학생수가 압도적 많아졌다. 현재 각종 학교에 해당되는 도쿄한국학교의 재학생 수는 1,000명을 초과하여 일조교에

해당되는 오사카의 한국학교 3개교를 합친 재학생수보다 훨씬 많아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민단계 한국학교는 각종학교(도쿄한국학원)와 일조교(백두학원, 금강학원)로서의 다양한 차이에 의해 현재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이 연구의 차별성은 이러한 기존연구를 발판으로 현재 한국학교에서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에 대하여 각종학교와 일조교의 제도적 차이로 가정하고 이를 설문조사의 실태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및 절차

이 연구의 분석자료는 201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본에 있는 민단계 한국학교(도쿄한국학교, 금강학원, 백두학원 등)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한 모집단으로 선정된 조사대상자들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을 통해 선정되었다. 연구의 모집단은 민족학교 전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민단계 한국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도하였으며 분석에서는 민족학교의 특성에 따라 각종학교와 일조교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는 민족학교로서 각종학교와 일조교의 차이점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총련계 조선학교의 대부분이 각종학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가장 정확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남북관계와 북일관계의 악화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대신에 민단계 한국학교로 한정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민단계 한국학교 내에도 각종학교(한국학교)와 일조교(금강학원, 백두학원)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민족학교의 제도적 차이점을 규명하기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나 주장은 먼저 한국계 민족학교의 이러한 조사과정과 자료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 연구는 조사과정에서 설문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초등학생과 중학교 1학년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중학교 2학년 이상을 설문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결과 총 855부가 수집되어 이 논문의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통계분석 툴을 활용하여 한국학교에 대한 빈도분석, 교차분석, 차이

분석, 상관분석, 판별분석을 실시하여 각종학교와 일조교의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 연구가 다루고 있는 민족학교 학생들 대상의 설문조사의 부족한 점은 보완하기 위하여 면접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조사과정 상의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기본적으로 모집단을 민단계 한국학교로 전수조사를 목표로 시도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설문조사의 대표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IV. 한국계 민족학교의 제도적 특성과 학교문화 형성

### 1. 학교문화의 제도적 차이와 특성 분석

이 연구의 조사대상은 큰 틀에서는 민단계 한국학교이며 각종학교로서 도쿄 한국학교와 일조교로서 오사카의 금강학원과 백두학원의 중학생 이상의 남녀 학생들이었다. 설문조사한 결과,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각종학교인 도쿄 한국학원은 425부, 금강학원과 백두학원은 일조교로 430부가 수집되었다. 각종학교와 일조교의 설문조사 비율이 거의 50:50에 가까운 수치여서 상호간의 차이를 분석하기에는 샘플의 통계적인 비율이 매우 적합한 수치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7)</sup>

그러면 이들 수집자료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민족학교의 특성(각종학교와 일조교)의 차이에 대하여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교차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인구통계학적요인과 민족학교 특성간의 차이는 통계상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연령별, 가족구성별, 아버지 국적별, 어머니 국적별, 본인 국적별, 세대구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분석결과에 대한 차이점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차이분석결과를 보면 학년이 높을수록 각종학교를 선호하고, 학년이 낮을수록 일조교의 선호하는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별에서는 가족수가 적을수록 각종학교를 선택하고 가족수가 많을수록

7) 민족학교 연구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임영언(2014) 「재일코리아인 민족교육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고찰」 『日本文化学報』 第62輯, pp.287-308 참조할 것.

일조교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았다. 부모의 국적별 차이에서는 아버지 국적이 대한민국적자일 경우 일조교를 선호하고 일본적 국적자일 경우 각종학교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았다. 어머니 국적별로는 아버지 국적별 성향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학교진학선택에 있어 부모의 선택이 중요한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 3〉 인구통계학적요인과 학교문화 차이분석

질문항목 구분		학교문화 특성				χ <sup>2</sup>	P
		각종학교		일조교			
성별	남성	200	49.6%	203	50.4%	.187	.665
	여성	230	51.1%	220	48.9%		
연령별	12세미만	89	47.6%	98	52.4%	16.532	.002
	12세 이상~14세미만	133	46.3%	154	53.7%		
	14세 이상~16세미만	107	48.0%	116	52.0%		
	16세 이상~18세미만	94	65.7%	49	34.3%		
	18세 이상	7	46.7%	8	53.3%		
가족구성별	2명	9	52.9%	8	47.1%	169.755	.000
	3명	48	43.6%	62	56.4%		
	4명	112	29.1%	273	70.9%		
	5명	165	71.7%	65	28.3%		
	기타	96	85.7%	16	14.3%		
아버지국적별	대한민국적	266	39.6%	406	60.4%	142.840	.000
	일본적	156	90.2%	17	9.8%		
	기타	6	75.0%	2	25.0%		
어머니국적별	대한민국적	212	34.8%	397	65.2%	205.692	.000
	조선적	1	33.3%	2	66.7%		
	일본적	208	89.3%	25	10.7%		
	기타	8	88.9%	1	11.1%		
본인국적별	대한민국적	197	33.7%	387	66.3%	217.540	.000
	조선적	0	0.0%	2	100.0%		
	일본적	174	93.0%	13	7.0%		
	기타	58	71.6%	23	28.4%		
세대구성별	1세(한반도출생)	37	18.7%	161	81.3%	198.570	.000
	1.5세(부모 따라 이주)	60	33.7%	118	66.3%		
	2세(부모 한반도 출생)	91	57.2%	68	42.8%		
	3세(조부모 한반도 출생)	129	87.2%	19	12.8%		
	기타	113	65.7%	59	34.3%		

본인국적별로는 대한민국 국적일 경우 일조교, 일본 국적일 경우 각종학교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세대구성별로는 일본에서 거주세대가 낮을수록 일조교를 선호하고 거주세대가 높을수록 각종학교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교차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민족학교 학생들의 학년이 높을수록, 부모와 본인의 국적이 일본 국적일수록 각종학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 구성에서도 제일 3세대가 제일 1세대보다는 각종학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일본에서 장기 체류하거나 오랫동안 생활할수록 각종학교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집단계 한국학교 중 각종학교에 중도입학학생이 많고 모국 대학진학이나 한국학교와의 관계 때문에 졸업할 때까지 다니는 경향이 강하지만 반대로 일조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일본학교로 전학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 학교문화의 실태 및 전망 신뢰도 분석

신뢰도 통계량			
구분	Cronbach 의 알파	Cronbach's Alpha Based on Standardized Items	항목 수
민족학교 실태	.693	.703	13
민족학교 전망	.825	.841	14

이번에는 민족교육의 실태(전체 13항목)와 전망(전체 14항목)에 관한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에 앞서 먼저 설문항목들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 알파계수를 산출하였다.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크론바흐 알파값은 .703~.841사이로 높게 나타나 설문문항들이 비교적 일관된 설문내용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민족교육 실태와 전망에 대한 변수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민족학교의 특성별(각종학교와 일조교)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민족교육의 실태에서 집단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두 집단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각종학교보다 일조교가 높게 나타났으나 T값은 -5.480으로 나타나 각종학교보다 일조교가 민족교육의 현재 실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학교문화 특성과 민족교육 차이분석

민족학교 특성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민족교육 실 태	일조교	429	3.1554	.46619	-5.480	.000
	각종학교	425	3.3371	.50224		
민족교육 전 망	일조교	430	3.1043	.56336	-.170	.865
	각종학교	425	3.1106	.53189		

〈표 6〉 학교문화 실태 및 전망 상관분석

구분		민족교육 전망
민족교육 실태	Pearson 상관계수	.329**
	유의확률 (양쪽)	.000
	N	854

주)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위의 〈표 6〉 민족교육 실태 및 전망 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민족교육 실태와 민족교육 전망과의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민족학교 학생들이 민족교육의 실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학생들일수록 민족교육의 전망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2. 학교문화 실태 및 전망 분석

이번에는 한국학교의 학교문화로서 민족교육 실태가 민족교육의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종속변수를 민족교육의 전망으로 독립변수를 민족교육의 실태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 〈표 7〉은 민족교육과 실태를 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추정된 회귀모형의 적합도에 대한 F통계량은 103.121(유의확률 0.000)으로서 유의하고, R<sup>2</sup>은 0.329로 설명력은 낮지만 회귀분석모형으로서는 통계수치상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t검정 결과, 민족교육 실태는 유의확률이 0.000으로 유의수준 5%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인 민족교육 실태는 종속변수인 민족교육 전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결과, 전체 설명의 영향력 정도는 0.365로 나타났다. 즉, 민족교육의 실태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학생들은 민족교육의 전망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성향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7〉 학교문화 실태 및 전망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921	.118		16.260	.000
민족교육 실태	.365	.036	.329	10.155	.000
F					103.121 (p=0.000)
R <sup>2</sup>					.329

다음은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민족학교의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학교특성(각종학교와 일조교)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연구가설을 세워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민족학교 특성(일조교, 각종학교)으로 표본의 크기가 같다고 규정하여 사전발생확률 값을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인구통계학적 항목(성별, 연령, 가족구성, 아버지국적, 어머니국적, 본인국적, 세대구성)중 연령, 가족구성을 제외한 항목은 가변수로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8〉 학교문화에 대한 판별분석<sup>8)</sup>

독립변수(민족교육 전반)	일조교	각종학교
민족학교 단점 = 학생수	2.794	.878
한국어수준	4.558	3.818
민족학교 선택이유 = 집에서 가까워서	.992	2.624
민족학교 선택이유 = 우리말	.665	1.241
민족학교 존재이유 = 민족의식교육	2.519	3.025
민족학교 선택계기 = 부모님권유	2.712	3.188
민족학교 존재이유 = 통일교육	1.632	.669
재학중학교 = 중급	2.652	2.258
(상수)	-8.082	-6.655

8) 여기에서는 Fisher의 선형 판별함수를 사용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하였음.

이 논문에서는 지면관계상 분석표를 제시하지 못했지만 민족학교 특성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간의 판별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어머니 국적이 한국적이고 재일동포 1세인 경우 각종학교로 분류될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 국적이 일본이고 재일동포 3세인 경우 일조교로 분류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 가족구성수가 많으면 일조교에 속한 민족학교에 다닐 확률이 높고 재일동포 1.5세인 경우 각종학교에 다닐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민족학교의 특성이 민족교육 전반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민족교육 전반이 민족학교 특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연구가설을 설정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판별분석의 종속변수는 학교특성(일조교, 각종학교)으로 표본의 크기가 같다고 규정하여 사전발생확률 값은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민족교육 전반에 대한 항목(재학중학교, 이전학교, 민족학교 선택계기, 민족학교 선택이유, 한국어수준, 민족학교 장점, 민족학교 단점, 민족학교 존재이유)중 재학중학교, 한국어수준을 제외한 항목은 모두 가변수로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위의 <표 8>에 제시한 것은 판별분석 결과에 따른 피셔(Fisher)의 선형 판별함수를 나타고 있다. 판별함수의 계수에서 일조교가 한국학교의 단점이 학생수라고 인식하는 경우, 한국어수준이 낮고 민족학교 존재이유가 통일교육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각종학교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한국학교 학생들이 민족학교의 선택이유가 “집에서 가까워서”, 민족학교 존재이유가 “민족의식교육”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그리고 민족학교의 선택계기가 “부모의 권유”라고 응답한 경우 각종학교가 일조교보다 판별함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민족학교 전반과 민족학교의 특성에 관한 판별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학교의 단점이 학생수라고 인식하는 경우, 한국어수준이 낮을수록 일조교로 분류될 확률이 높으며 민족학교 선택이유가 집에서 가까워서, 민족학교 존재이유가 민족의식교육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각종학교로 분류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학교문화 형성에 관한 현지조사 결과

다음은 일본현지 한국학교에서 인터뷰 조사에 따른 학교문화(각종학교와 일조교)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각종학교인 도쿄한국학교가 1980년대 이후 급격히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저출산고령화와 글로벌화에 따

른 뉴커머의 대량이주라는 인구학적 요인이 작용한 것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각종학교로서 도쿄한국학교는 오사카를 중심으로 하는 일조교인 3개 학교와 비교하여 학교규모가 훨씬 크고 뉴커머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각종학교의 급격한 성장요인은 전술한 글로벌시대의 인구이동이라는 인구학적 요인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도쿄한국학교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교과서를 한국어로 가르치고 있다. 한국에 있는 모국학교로의 접속(전학이나 진학)을 의식하여 일본에서 모국 교육과 거의 진배없는 수업을 행하고 있다. 둘째, 글로벌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여 초등부에서는 영어 수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즉 한국학교가 글로벌화의 영향과 학부모들의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한국학교로서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인터내셔널스쿨의 요소를 적극 수용하여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인 뉴커머들이 일본에 주재원으로 체류하면서 자녀들에게 인터내셔널스쿨과 같은 분위기에서 영어회화를 습득시키겠다는 학부모의 교육수요와 해외에서 체류한 공백으로 인하여 귀국 후 자녀들이 한국에서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태만은 피하고 싶다는 학부모의 교육수요를 만족시키는데 성공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오사카를 중심으로 하는 일조교의 상황은 수업내용과 커리큘럼의 측면에서 확연히 차이가 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조교는 일본문부성의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모국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에 준한 수업을 실시하기 힘들고 학교교원들도 기본적으로 일본 교원의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기 때문에 영어수업의 경우 원어민 교육을 시행하기 매우 힘든 구조이다. 또한 이들 일조교 계통의 학교 내에는 보통 올드커머와 뉴커머는 물론이고 일본인 학생 등 다양한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 뉴커머의 수요에만 적극 대응할 수 없는 현실적인 측면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는 1945년 이후 운영되어온 민족학교 중에서 한국학교를 중심으로 일조교와 각종학교로 구분하여 학교문화 형성의 역사적 배경과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즉 이 연구는 민족학교의 위기에 대하여 제도적 측면에서 각종학교와 일조교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학교문화 형성 배경과 원인을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역사적인 배경의 측면에서 민족학교의 위기는 재일코리안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도래, 북한정세의 불안이나 재일코리안 자체의 귀화자 증가, 글로벌화에 따른 재일코리안 사회의 변화 등을 지적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민족학교로서 조선학교와 한국학교가 갈라지게 된 계기는 1948년 오사카와 고베를 중심으로 발생한 '한신교육투쟁'으로 이때부터 한국학교 4개 중 2개 교가 일조교로 전환되었고 민족교육을 중시한 조선학교는 100%가 각종학교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

셋째, 1956년부터 북한에 의한 교육원조비는 표면적으로는 총련계 민족학교의 일본 전국적인 학교시설 설립과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총련계 조선학교와 민단계 한국학교는 시설이나 규모면에서 많은 차이를 발생시켰는데 그 배경에는 일조교와 각종학교라는 제도적 선택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련계 민족학교는 각종학교를 선택하여 제도적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일본 전국에 각종학교를 설립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한국학교는 도쿄한국학원을 제외하고 1948년 한신교육투쟁을 계기로 일조교로 전환하여 일찍이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선택하였다. 또한 한국학교는 한국정부의 지원이 미미했던 만큼 학교시설확대나 규모에서 당시나 지금이나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에 의한 통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종학교와 일조교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차분석결과, 성별로는 인구통계학적요인과 민족학교 특성과의 통계상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연령별, 가족구성별, 아버지 국적별, 어머니 국적별, 본인 국적별, 세대구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쿄한국학교와 같은 각종학교에는 중도입학학생이 많고 모국 대학진학이나 한국학교와의 관계 지속 때문에 졸업할 때까지 다니는 경향이 강했지만 반대로 일조교(백두학원, 금강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 중도에 포기하거나 일본학교로 전학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관분석결과, 민족교육 실태와 민족교육 전망과의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했다. 즉 민족학교 학생들이 민족교육의 실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학생들일수록 민족교육의 전망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회귀분석결과, 민족교육의 실태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학생들은 민족교육의 전망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

향이 높았다. 넷째, 판별분석결과, 한국학교의 단점이 학생수라고 인식하는 경우, 한국어수준이 낮고 민족학교 존재이유가 통일교육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일조교로 분류될 확률이 높았다. 그러나 민족학교 선택이유가 “집에서 가까워서”, 민족학교의 선택계기가 “부모의 권유”, 민족학교 존재이유가 “민족의식교육”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각종학교로 분류될 확률이 높았다. 다섯째, 인터뷰조사결과, 각종학교와 일조교의 차이점은 모국학교와 연계된 수업내용, 글로벌화에 따른 영어수업과 인터넷서널 스쿨적인 요소 등 학부모의 교육수요에 대응하는 커리큘럼의 구성에서 확연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해방 이후 민족학교의 학교문화의 형태는 조선학교가 각종학교로서 일본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전국적으로 학교와 학생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학교는 비교적 빠른 시기에 일조교화되었으며 해방이후 학교수는 거의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각종학교인 조선학교와 일조교인 한국학교는 민족교육의 위기를 맞고 있지만 도쿄한국학교는 글로벌시대 교육내용의 집중과 선택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민족학교의 학교문화의 차이는 일본에서 민족학교의 제도적 수용차이에 의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시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수요에 얼마나 적절히 대응했는가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 【参考文献】

- 김인덕(2008) 「1948年 한신(阪神)教育鬭爭과 在日朝鮮人 歴史教育: 在日本朝鮮人聯盟의 民族教育運動 戰術과 關聯하여」 『한일민족문제연구』. (16).
- 김인덕(2012) 「해방 후 재일본조선인연맹의 민족교육과 정체성 : 『조선역사교재초안』 과 『어린이 국사』 를 통해」 『역사교육연구회』 제121집.
- 박수정 · 이준우(2013) 「학교문화가 학교구성원의 학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3 No.7.
- 이현홍(2009) 「재일한인 생활사소설 연구: 교육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35집.
- 임영언(2014) 「재일코리안 민족교육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고찰」 『日本文化學報』. 第62輯.
- 진희관(2011) 「북한의 재외동포정책 연구: 재중총련, 재CIS동포, 재일총련 그리고 재미동포정책 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23(1).
- 李瑜煥(1960) 『在日韓國人五十年史: 發生因に於ける歴史的背景と解放後に於ける動向』. 新樹物産株式會社出版部.
- 小澤有作(1973) 『在日朝鮮人教育論-歴史編』 亞紀書房.
- 鍛冶致(2009) 「統計でみる外國人兒童の家庭環境と教育課題」 『日本語學』. 28卷6号.
- 鍛冶致他(2013) 「1995年と2000年の國勢調査にみる外國人の教育-外國人青少年の家庭環境と・進學・結婚」 『研究紀要』 第10卷第1号.
- 金德龍(2004) 『朝鮮學校の戦後史-1945~1972-』 社會評論社.
- 金賢(2006) 『在日コリアン』 株式會社九天社.
- ソニアリヤン(2005) 『コリアン・ディアスポラー在日朝鮮人とアイデンティティ』 明石書店.
- 宋基燦(2012) 『「語られないもの」としての朝鮮學校』 岩波書店.
- 中島智子(1993) 「日本の多民族教育と在日韓國・朝鮮人教育」 『異文化間教育7』. 仲尾宏(2003) 『在日韓國・朝鮮人問題の基礎知識』 明石書店.
- 韓東賢(2006) 『チマ・チョゴリ制服の民族誌-その誕生と朝鮮學校の女性たち』 双風舎.
- 韓東賢(2005) 「メディアの中の『在日』と『朝鮮學校』、そのリアリティのありかた」 『世界』. 4月号、岩波書店.
- 朴三石(1997) 『日本のなかの朝鮮學校-21世紀にはばたく』 朝鮮青年社.
- 朴三石(1997) 『知っていますか、朝鮮學校』 岩波書店.
- 朴尙得(1980) 『在日朝鮮人の民族教育』 岩波書店.
- 民族教育研究會編(1991) 『資料在日朝鮮人の民族教育の權利について-一朝・日關係改善と國際化の流れの中で』 學友書房.
- 금강학원 홈페이지 (<http://www.kongogakuen.ed.jp/>(검색일: 2014.10.13.)).

## 要 旨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entral figure and historic formation background and observe the differences of the regular schools and irregular schools with Korean school.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is used of interpretation of conducting survey paper and interview at first-hand field in Japan.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s. First, in historic background, there is a division of Chosun schools and Korean schools as 'Hanshin education fighting' and some of Korean school select regular schools and irregular schools. Second, Chosun schools are detached from Japanese government's islands and expanded to whole country because of choosing as irregular schools, but Korean schools select as regular schools and plane to stable school management in Japan. Third, irregular schools tend to go under of Korean college entrance examinations for graduation because of relation with Korean school, but students of regular schools' were expose that have many students who change schools to Japanese school. Forth, students of regular schools are not good at Korean language about role of ethnic school and unity education, irregular school's students chooses nation school by parents' inducement, and they thought that solidify nationality educa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difference of ethnic school have differed according to confrontation of systematic adaptation of Japanese government and education demand of the global era.

キーワード : Ethnic School, Chosun School, Korean School, Irregular School, Regular School, Hanshin Education Fighting

투 고 : 2014. 11. 30  
1차 심사 : 2014. 12. 13  
2차 심사 : 2015. 1. 3